I. 서 론

공 백

Ⅰ. 서 론

최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전과 같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생계를 위해 전업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점차 줄고 있으며, 그 대신 주로 용돈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노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심과 학교교육을 벗어나 현장중심의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학생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광호, 장원섭, 이혜정, 김희진, 2001).

학교를 다니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일부 청소년들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청소년, 부모 그리고 사회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이 책임감, 사회성, 그리고 대인관계의 발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미리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욱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성인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의문,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가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라는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를 받고 주로 용돈 마련 등의 경제적 이유를 주목적으로 주변화된 직종, 안정성이 없거나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외에 존재하는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의미 있는 성인 직업과의 불확실한 연계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장시간의 노동은 학업참여를 소홀하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비행의 또 다른 위험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되어 노동시장 참여가 이들의 생활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초기에는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보수에 관심을 가졌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심리사회학적 측면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청소년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업 및 노동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최근에도 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일과 소비생활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취업이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 혹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활동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한경혜, 2000). 이와 같은 연구들에 기초하여 서구에서는 국가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더불어 경제적 욕구까지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기 미국에서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Entwisle, Alexander, Olson, 2000).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 이전으로 연구자들은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에 거의 주의를 두지 않았고 실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도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샘플에 기초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 단계에서의 연구들은 청소년 노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로 지적하였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는데, 노동과 학업 그리고 다른 발달과업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청소년 노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검토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와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용돈 마련 등의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주로 단순 노동직과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이 약물사용,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부정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노동의 성격이 서비스 직종이나 단순노무와 같이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연구의 결과(Arnett, 2000; Bachman & Schulenberg, 1993)는 높은 노동강도를 필요로 하는 노동환경과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하는 노동이 청소년들에게 비행유발,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의 문제, 학업수행 능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노동공간은 학교와 가족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회제도이다(Marsh, 1991). 그러나 가족, 또래집단, 학교가 청소년 발달의 핵심적인 사회제도라는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노동현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Mortimer, Finch, Ryu, Shanahan, & Call, 1996). 또한 비행의

원인에 대한 검토에서 범죄학자들은 흔히 가족과 학교라는 두 가지 사회제도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Hirschi, 1969; Loeber & Stouthamer-Loeber, 1986). 하지만 노동시장이라는 다른 제도적 영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Agnew, 1986; Heimer, 1995). 청소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용의 효과를 조사한 사회과학 문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을 한다는 것이 교육체계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반적 경험이 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개별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Hagan, Gillis, & Brownfield, 1996).

특히 범죄학자들은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에 초점을 둘 때 흔히 '실업과 고용'이라는 이슈를 강조하였다(Freeman, 1996). '실업과 고용'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심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인 초기와 성인에게 노동시장에의 전이는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며 실업의 범죄적 영향은 틀림없이 탐색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적절한 과업이기 때문에 실업은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학자들은 주의를 '실업과 고용'이라는 이슈에서 이동하여 비행에 대한 노동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비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경험이나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도의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가족 및

학교생활간의 관계를 충분하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와 노동관련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독립적인 영향을 검토할 수 있고 학업수행 능력과 가족관계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비행을 촉진시키는지 혹은 차단하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전하고 유익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노동시장 참여가 긍정적 경험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고 하겠다.

공 백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동기
2.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3.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긍정적 측면
4.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부정적 측면
5.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와 관련된 쟁점

공 백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동기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용돈 마련으로 보인다(한경혜, 2000; 이혜정, 2000; Arnett, 2000).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소비 규모와 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도종수, 2001). Arnett(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일을 할 경우 일을 통해 보람, 가치, 기술 획득의 기회와 같은 내재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비행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노동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또래들과 어울려 유흥업소 출입 등 성인들이 우려하는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수단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이혜정, 2000; 장원섭, 2000).

또한 학업과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극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찾아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Steinberg, Fegley, & Dornbusch, 1993).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또래들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장시간 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chman & Schulenberg, 1993).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적이 낮고 대학에 입학할 계획이 없었던 청소년들이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의 교육적 성공 혹은 실패

그리고 적응은 청소년들이 장시간 노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에 관심이 낮고 학업성취도가 낮았던 청소년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을 위해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하게 Steinberg et al.(1993)은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했던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학교생활과 학업에 관여가 적었고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덜 관여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수의 청소년들이지만 일을 하는 것이 학교와 공부에서 벗어나 남는 시간을 보내거나 진로탐색을 위한 적극적 선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공부, 일, 여가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생에 걸쳐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도 실천을 통한 공부가 과거에 비해 더 강조되고 있으며 공부, 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생활양식도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광호(2001)는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생활양식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방과후에 일하고 주말에는 소비하는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결정은 개인적 선택이라고 가정하면서 개인적 특성만을 다루고 있다(Keithly & Deseran, 1995).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가족의 환경 혹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Barling, 1990; Voydanoff, 1987) 노동시장 참여를 연구하면서 노동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동과 가족의 연구는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의 영향력에 주의를 둘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Elder(1974)는 경제적 박탈 그리고 가족규모

가 큰 것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가족규모가 큰 것은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실직은 다른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그 이후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실직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Voydanoff, 1987). 다른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자원기반으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Borman(1991)은 가족과 친구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일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조자들이라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모는 아마도 자녀가 일을 할 기회를 갖는데 가장 크고 유용한 네트워크일 수 있다. Schill, McCartin, and Meyer(1985)는 일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생의 노동시장 경험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Keithly와 Deseran(1995)의 결론은 경제적 욕구가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고 제안하는 연구들과는 반대로 가정의 낮은 수입과 일을 하지 않는 부모와 같은 요인들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다른 의미로 가족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들의 재정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잠재적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높은 소득과 높은 지위 가정의 청소년들이 직장에의 접근에 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협력을 통한 고용기회 구조는 일을 구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하나일 수 있다. 이들의 다른 결론은 가족의 유형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부모가 모두 있는 정상적인 가정과 편모가정의 비교에서 노동시장 참여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차이점을 밝혀내었다. 정상가정의 청소년들이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결정에서 더 유연성이 있었고 정상가정 어머니의 고용상태는 아버지의 고용상태보다 자녀의 노동시장 참여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 정상가정은 일을 하려는 자녀에 선택에 더 지지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버지만 일을 하는 더 전통적인 가족의 부모는 그들 자녀가 일을 하려는 것을 격려하지 않았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21세기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지식정보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구조조정 작업은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혹은 유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파트타임 노동의 비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그 인력은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유휴노동력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도종수, 2001; 이광호 외, 2001; 이철위 외, 2000).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학생청소년들의 파트타임 노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광호 외(2001)와 장원섭(2000)은 소비사회에서 청소년의 주체성은 청소년 취업의 필요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학생청소년의 시간제 근로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고 학교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고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삶의 과정에서 평생학습의 개념이 강조되는 동시에 배우면서 일을 하는 경향도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이 증가하는 이유로 보고 있다.

유사하게 이철위 외(2000)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원인을 과거보다 높아진 청소년들의 소비수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 밖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파트타임 고용의 확대에서 찾고 있다.

2.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동기에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정(2000)이 3,833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30.4%이었고, 이 가운데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42.4%)과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41.8%)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45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철위 외(2000)의 조사결과,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전체의 29.2%이었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29.7%, 실업계 고등학생 46.1%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험율이 높았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이 더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경험율이 더 높았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년 서울과 경기도 인근의 수도권 중학생과 고등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참여연대(2002)의 분석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45.3%이었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47.2%, 실업계 고등학생은 66.8%로 나타나, 다

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실업계 학생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초 노동시장에 참여한 시기를 확인한 결과, 약 60%의 청소년들이 중학생일 때 처음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철위 외, 2000). 다른 조사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의 최초 연령은 만13세 미만부터 한 경우는 13.5%, 만13세에서 15세 미만 한 경우는 32.0%, 만15세에서 18세 미만 한 경우는 52.4%이었다(참여연대, 2002).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전단지 돌리기(44.4%), 음식점 서빙(13.1%), 신문배달(5.6%), 패스트푸드점(4.5%), 주유소(2.8%) 순이었다(이철위 외, 2000). 청소년 본인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경험 무 77.2%, 경험 유 85.1%)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이혜정, 2000).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85.1%가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철위 외, 2000).

일일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1-5시간이 76.5%이었으며 8시간 초가 장시간 일하는 학생도 15.9%나 되었다(이철위 외, 2000). 서울 및 경기 일원의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광호 외(2001) 연구에 의하면, 많은 청소년들은 주 3-4일 정도 일을 하였고 일하는 날의 평균 근무시간은 평일이 5-6시간, 주말이 6시간 이상으로, 주 21-24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2002)의 조사결과는 하루 3시간 이하가 32.2%, 4-7시간이 50.2%, 그리고 8시간 이상이 17.8%이었다. 그리고 주당 근로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30.8%, 매일 일하는 경우가 15.2%, 1-2일이 17.1%, 3-4일이 17.7%, 5-6일이 19.2%이었다. 일을 지속한 기간의 경우 일주일도 안되어 끝나는 아르바이트가 53.0%이었고 한달 이상

지속되는 아르바이트는 18%로 조사되었다(이철위 외, 2000). 이혜정(2000)과 참여연대(2002)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데, 각각 55.3%와 48.8%가 2주 미만의 단기고용이었고, 3달 이상이 각각 7.8%와 11.1%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51.3%), '중요한 무엇인가를 사거나 살 곳이 생겨서'(38.7%),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28.1%), '친구들의 권유'(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와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는 각각 3.3%와 2.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비행위를 위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을 알 수 있다(이철위 외, 2000).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5.6%가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14.9%는 경험축적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5.4%로 나타나 많은 경우가 일상적이고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2002). 한편 서울과 수도권의 13에서 18세의 청소년 15명과 청소년 자녀를 둔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focus group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분석한 한경혜(2000)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할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이 관찰되었는데, 하나는 부모가 주는 용돈이 일상에서의 소비욕구를 채우기가 부족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용돈을 비교적 충분히 받는데도 목돈이 드는 특별한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경우이었다.

3.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긍정적 측면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닌다라고 가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하나의 직업은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고, 자율성을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현실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Bachman & Schulenberg, 1993; Stevens, Puchtell, Ryu, & Mortimer, 1992). 일을 함으로써 변화된 자아개념과 새로운 정체성, 책임감에 대한 새로운 기대,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가져 올 수 있다(Phillips & Sandstrom, 1990). 일반적으로 학생, 친구, 가족구성원, 노동자 등의 다양한 역할에 따른 책임감에 직면하여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능력은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Elder & Caspi, 1990).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성취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청소년기에 가족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신감에 기여한다. 흔히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발달적으로 이점이 있다(Hetherington, 1989). Greenberger와 Steinberg(1986)는 노동시장 참여는 시간엄수, 신뢰성, 개인적 책임감, 그리고 자아 신뢰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도 호의적이다(Phillips & Sandstrom, 1990).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청소년 노동이 독립성, 책임감, 훈육, 순응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Phillips & Sandstrom, 1990) 비행에의 관여를 감소시킨다고 믿고 있다(Cullen & Travis, 1984). 같은 맥락에서 일부 범죄학자들은 흔히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비행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개혁을 주장하기도

한다(Allan & Steffensmeier, 1989; Freeman, 1996).

일부의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 경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Bachman & Schulenberg, 1993). 또한 미래 직업적 목표에 대해 신중하게 사고하는 것을 격려한다(Mortimer et al., 1996).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직장을 구하는지, 직장에서 감독자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의 전이를 돕는 과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어떻게 얻는지를 배운다. 자기 효능감 혹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Carr, Wright, & Brody, 1996; Markus et al., 1990).

또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고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Bachman & Schulenberg, 1993). D'Amico(1984)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주당 20시간 이하 낮은 강도에서의 노동은 학교중도탈락율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그 이후 고용을 더 잘 보장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직장에서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시기의 고용은 학교중도탈락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학업수행을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D'Amico & Baker, 1984; Steel, 1991; Stern & Nakata, 1989). 단지 주당 2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숙제 혹은 부모 및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과 같은 전형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호 외(2001)는 학교를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를 확실히 학교생활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아르

바이트 역시 성실하게 수행하는 유형, 아르바이트 이후 생활의 중심이 아르바이트로 옮겨지면서 학교생활이 다소 무질서해지고 성적이 떨어진 유형, 그리고 학교 밖에 존재하던 생활의 중심을 아르바이트로 옮겨온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이전보다 지각이 늘고 수업시간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빈도가 높았고 성적도 하락한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성적을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태도가 좀 더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른 연구(Entwisle, Alexander, & Olson, 2000)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하나의 역할을 잘 관리하는 경우 또한 다른 역할도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을 희생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zero-sum 모델보다는 두 활동은 서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분명한 이점은 비록 대부분은 소비적인 것으로 사용되지만,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학적 연구(Ruhm, 1995)는 비록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것은 소득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이점은 청년층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 청소년 노동은 미래의 성인 노동자를 위한 업무 능력과 유능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고용주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숙련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하기도 한다(Bachman & Schulenberg, 1993).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다중

역할수행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Mortimer & Finch, 1986; Pimentel, 1996).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계망 확대 그리고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가정들은 분명하게 미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빈곤청소년들의 미래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the Economic Opportunity Act(1965)와 the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1973)를 포함한 정부 입법화의 토대로 기여하였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는 학교와 직장의 일반화된 통합을 강조하였는데, 여러 정부위원회들은 노동현장에서의 더 많은 청소년들의 관여를 요구하였다. 대공황기에 대한 Elder (1974)의 연구는 경제적으로 박탈된 가정의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National Commission on Youth(1980), President's Science Advisory Committee, Panel on Youth(1974), Work-Education Consortium(1978)과 같은 다양한 정부위원회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교육과 노동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National Commission on Youth는 파트타임 노동이 독립성과 책임감, 현실적인 경력 선택, 좋은 업무태도 및 습관과 같은 측면들을 촉진하는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위원회들의 제안은 전형적으로 실증적인 증거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다(Hamilton & Crouter, 1980).

국내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들에게 미래의 진로와 현재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자립심과 책임감을 기르고

사회경험을 통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이철위 외, 2000; 한경혜, 2000; 이형하, 이용교,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대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장원섭(2000)은 취업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취업은 사회화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래의 삶과 진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취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거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광호 외(2001)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적합한 결론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부정적 측면

청소년 노동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는 변화하고 있으며(Mortimer et al., 1996),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가정들을 비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 혹은 정신건강에 늘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노동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다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마찬가지로 Steinberg와 Dornbusch(1991)의 결론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은 흔히 부정적인 결과들과 연관성이 높다(Bachman & Schulenberg, 1993;

Steinberg et al., 1993). 한경혜(2000)의 연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비행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노동강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일을 하는 청소년들과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보다 적은 시간 일하는 청소년들과 더 오래 일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관여하는 정도와 학업수행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고용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음주와 흡연, 약물사용 및 다른 비행 등 다양한 문제행동들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Agnew, 1986; Bachman & Schulenberg, 1993; Greenberger & Steinberg, 1986; Heimer, 1995; Mortimer, Finch, Shanahan, & Ryu, 1992a; Steinberg & Dornbusch, 1991; Steinberg, Feley, & Dornbusch, 1993; Steinberg & Greenberger, 1990; Yamoor & Mortimer, 1990). Greenberger와 Steinberg (1986)는 특히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미숙하게도 적절한 대처기술 없이 성인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장시간 노동에 참여하거나 미숙련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일탈행동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일탈행동을 하는 또래들을 만나거나 나이 많은 동료들에게서 음주와 흡연을 학습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은 일을 같이 하는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며 유흥가 출입 등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한경혜, 2000). 가출경험과 관련해서 볼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20.6%인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43.7%로 나타났다(이혜정, 2000). 그리고 Wright, Cullen, & Williams(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분석

결과 2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감소, 부모의 통제 감소, 그리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약화시켜 잠재적으로 비행에의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노동강도는 비행과 정적으로 중요하게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강도는 특히 고위험 남자 청소년들의 비행에의 관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동시간 변화에 따라 학업성취, 일탈행동, 시간사용, 자부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노동시간이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Bachman & Schulenberg(199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노동강도는 주당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이었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더 많이 노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주당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경우 약물사용과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들의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여 요구되는 역할 부담과 다양한 역할들에서 오는 역할간 갈등을 포함하며(Finch et al., 1994; Steinberg & Greenberger, 1990), 이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Shanahan et al., 1991). 이러한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알코올, 마리화나, 담배, 코카인 사용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다른 연구들도 유사하게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당 20시간 이상 과도하게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음주와 흡연을 한다고 보고하였다(Bachman & Schulenberg, 1993; Greenberger & Steinberg, 1986; Mortimer et al., 1996; Steinberg & Dornbusch, 1991; Steinberg et al., 1993).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청소년들의 반응 패턴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의 하나로 음주 등을 한다는 것이다(Shanahan et al., 1991).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

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현장의 차이 맥락과 개인적 대처 전략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Hansen & Jarvis, 2000).

또한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장시간의 노동은 학업성취도, 과외활동 참여, 교육적 기대 수준, 그리고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 등 학업에의 관여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한경혜, 2000; Marsh, 1991; Steinberg & Dornbusch, 1991; Steinberg et al., 1993). Steinberg & Dornbusch(1991)는 노동시간이 청소년들의 행동과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학교생활과 관련된 지표를 성적, 숙제하는데 사용하는 시간, 학급의 일 참여, 학교에서의 부정행위, 특별활동 참여, 수업시간 집중정도 등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은 학업의 계속성을 방해하고 학업수행 능력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노동강도는 학업수행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Lillydahl, 1990; Mortimer et al., 1992a; Mortimer, Finch, Shanahan, & Ryu, 1992b).

이와 함께 Steinberg, Fegley, & Dornbusch(1993)에 따르면, 2년 이상 일을 했지만 지금은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성적과 교육적 흥미가 높지 않고, 또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그 대안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하기 이전의 차이를 통제했을 때 비록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강도와 부정적 결과들의 패턴은 유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노동강도는 학교성적 및 대학진학 계획과 부적으로 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숙제하는데 덜

시간을 쓰고, 수업을 더 흔히 빼먹고, 일하지 않는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낮은 교육적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것이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청소년들이 낮은 학교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숙제하는데 시간을 덜 썼고, 일을 하기 전에 더 많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의 결과인지 구별하기 어렵다(Hansen & Jarvis, 2000). 일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다를 수 있고 이것이 부정적 발견들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강도와 노동경험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한 Bachman & Schulenberg(1993)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지 않는 직종에서 낮은 질의 노동을 할 때, 특히 미래 직업과 별 관련이 없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Greenberger와 Vaux(1981)는 무의미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비인간적 조직, 역할 갈등, 낮은 임금구조는 여학생의 학교결석을 증가시켰으며,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는 흡연, 알코올, 마리화나 사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혜정(2000)의 연구에서도 인문계의 경우 남녀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르바이트를 학교 부적응의 경로로 볼 수 있으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있다고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을 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은 학업 및 과외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의 긴장을 경험할지 모른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일을 하는 청소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의 통제를 덜 받으며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00).

또한 전형적으로 노동은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고 밀접한 대인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기간을 잃어버린다고 Greenberger와 Steinberg(1986)는 경고하면서 청소년 노동은 심리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복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노동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Mortimer et al., 1994). 특히 이른 나이에 일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rton, Cullen, Evans, & Dunaway, 1994; Gottfredson & Hirschi, 1990).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의미 있는 성인 직업과의 불확실한 연계를 지니고 최저임금을 받고, 서비스 지향적 직종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Schneider & Schmidt, 1996). 청소년 노동은 학교에의 관여, 또래 및 가족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 냉소적인 세계관, 약물사용, 흡연을 증가시킨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일을 하는 것은 학업에의 전념과 부모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결국 비행에의 더 큰 위험에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할 수 있다. Bachman과 Schulenberg (1993)의 연구결과 노동강도는 흡연, 음주, 불법 약물의 사용, 대인간 공격성, 절도, 부모와의 갈등, 수면 부족 등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또한 노동강도는 여가시간 보내는 방법에서의 만족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물론 노동강도는 교육적 성공의 다양한 측정요인들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들의 가장 분명한 발견은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유사하게 고용시

기와 비행의 과거 수준을 통제한 횡단적 연구들에서도 주당 15-20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낮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감소된 교육적 열망을 경험하고, 약물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Mortimer & Finch, 1986; Steinberg & Dornbusch, 1991).

5.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와 관련된 쟁점

일을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위에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의 일반적인 이점에 관해 동의되지 않고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청소년 노동의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노동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강조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변화가 없다라는 증거들도 다른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철위 외(2000)의 조사에서는 학업성적이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변화가 없는(81.4%)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변화가 없다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86.2%)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청소년들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여 아르바이트가 성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계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과도 부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정, 2000; 장원섭, 2001). D'Amico(1984)는 주당 20시간 이하 일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Mortimer et al.(1996)는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변인들, 숙제하

는데 소비한 시간, 성적에 대한 분석에서 노동이 일관되게 해롭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장시간 일했던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숙제하는데 덜 시간을 소비했다는 증거는 있었으나 학교성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낮은 강도 일한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강도 일한 청소년들과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높은 성적을 가졌다는 점을 분석에서 밝히고 있다.

유사하게 Steinberg et al.(1993)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혹은 낮은 노동강도에서 일을 한 청소년들은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들보다 성적이 낮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증가한 초기에는 낮은 노동강도 청소년들이 성적과 숙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이 흡연 혹은 학교관련 문제행동을 촉진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높은 노동강도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언제나 노동시장 참여가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청소년의 개인적, 가정적 배경이나 일의 종류, 성격 그리고 강도 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광호 외, 2001).

한편 Mortimer et al.(1996)의 결론은 노동시간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노동강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정서적 문제와 중요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다른 심리사회적 결과와 노동시간의 영향을 검토한 Mortimer et al.(1992a)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노동강도의 영향을 검토한 다른 연구들도(Bachman & Schulenberg, 1993; Steinberg & Dornbusch, 1991)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노동에 있어서 투자의 수준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신뢰와 중요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 참여가 청소년발달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잠재적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슈는 청소년 노동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간의 교환이다. 노동강도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심리사회적 결과 모두에 기여한다면, 이러한 교환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고려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Bachman & Schulenberg, 1993).

그리고 상반되는 관점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Hansen과 Javis(2000)는 청소년들의 일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을 간과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을 하는가 여부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하는가 여부에서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어떤 동기에서 일을 시작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일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경혜(2000)는 일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 등 차이의 폭이 컸다고 지적한다. 일의 동기, 일터에서 피트백의 성격, 부모의 지원 및 관여 정도 등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일을 통한 내재적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일의 성격이 서비스 직종이나 단순 노무와 같이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

의 아르바이트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청소년들은 일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번 돈을 쓰는 과정에서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이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개입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문제들이 극복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비록 일을 하는 시간은 이러한 상이한 견해를 설명하는 결정적 변수로 확인되고 있지만, 노동 그 자체는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Shanahan, Finch, Mortimer, & Ryu, 1991).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맥락과 역할은 상대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Hansen & Jarvis, 2000). 청소년들을 위한 고용 기회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와 서비스 영역들이다. 매우 제한적인 노동현장에 대한 과도한 표현 때문에 연구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맥락과 역할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동일한 집단을 구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의 노동경험을 동일한 현상으로 검토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적 영역이라는 하나의 맥락에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이 있는 결과에 초점을 두었다. 비록 사적 영역이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 노동을 설명하지만, 더 긍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노동현장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분적으로 Hansen과 Jarvis(2000)의 연구결과는 가족이 운영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사적 기업에서 일하는 또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부모의 지지를 인식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Resnick et al.(1997)은

부모와 유대가 있다고 인식했던 청소년들이 더 낮은 수준의 정서적 혼란과 폭력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가족과의 친밀감이 흡연과 음주 등을 하는 것을 막았고 첫 성경험의 지연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부모와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 전략일 수 있다(Finch et al., 1994).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강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인과관계 방향을 포함한다(Bachman & Schulenberg, 1993). 분명하게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노동강도가 다양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요인들의 원인이라고 가정(Lillydahl, 1990)하지만, 이 이슈는 완전하게 강조되지 않았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있다(Mortimer et al., 1992a, 1992b; Steinberg & Dornbusch, 1991). 이들에 의하면 상관관계는 우선적으로 자기선택을 반영한다라는 가능성을 남겨 놓고, 특히 노동강도는 상관관계 요인들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일 수 있거나 노동강도와 상관관계 요인들 모두는 인과적으로 또 다른 변인의 더 근본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강도와 약물사용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약물사용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며, 약물사용을 더 많이 하는데 기여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또한 장시간의 노동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변인은 초기 교육적 확신과 성공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낮은 학업수행 능력 그리고 비행과 약물사용 등은 노동시장 참여 이전에 분명하게 나타난 문제행동의 구성요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러한 이슈는 청소년 노동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관한 확고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더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측정변수들
3. 자료분석방법

공 백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4곳과 실업계 고등학교 4곳 등 8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각 학교의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무작위로 3개 학급 혹은 4개 학급에서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836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은 423명(50.6%), 여자 청소년은 413명(49.4%)이었다. 설문지는 교사와 보조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2003년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학교에서 직접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857부이었으나, 이 가운데 불성실하거나 자료 누락이 심한 21부를 제외하고 83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변수들

1) 배경특성 변수들

본 연구에서는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고용상태, 가족의 유형 등 다섯 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응답범주는 1점(무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에서 6점(대학원졸업 이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1점(매우 나쁜 편)에서 5점(매우 좋은 편)이었다. 성별과 학교유형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2의 값을 부여하였고, 인문계는

1, 실업계는 2의 값을 부여하였다.

2) 노동관련 변수들

노동관련 변수들로는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 최초 노동경험, 노동시장 참여 이유, 노동강도, 노동의 지속기간, 그리고 노동환경 등 9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노동환경에 관해서는 임금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지, 근무처의 물리적 환경에 만족하는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으로 나누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에 의해 조사되었다.

3) 부모와의 유대

부모와의 유대는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슈퍼비전으로 나누어 각각 4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부모의 지지 문항들은 '애정 및 정신적 지지 정도'와 '가족구성원간의 대화 정도'를 포함하였다. 부모의 슈퍼비전과 관련하여 '부모님은 집밖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계신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업수행 능력

학업수행 능력은 '학교생활 적응정도', '친구들과 비교하여 공부하는 정도', '학생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적' '학급의 활동참여정도', '수업시간 집중정도'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범주는 1점에서 5점이었고, 학업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값을 부여하였다.

5) 비행관련 변수들

음주는 청소년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한달 평균 술을 마신 경험과 지난 1년 동안 술에 취한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였다. 흡연은 청소년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담배 몇 개피를 피웠는지'를 '없다, 1-5개피, 6-10개피' 등의 범주에서 1점에서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험, 학교에 지각을 한 경험, 그리고 학교수업을 빼먹은 경험'을 1점(없다)에서 5점(7번 이상) 범위에서 청소년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측정되었다. 폭력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였다. 응답범주는 빈도를 고려하여 등간척도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없다, 1-2번, 3-4번' 등의 범주에서 1점에서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 집단간 상관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노동시장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3.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공 백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개인적 및 배경적 특성

<표 1>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이 423명(50.6%)이었고 여자 청소년들이 413명(49.4%)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47.7%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52.3%를 차지하였다.

〈표 Ⅳ-1〉 개인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단위 : 명, %)

구 분		명	%	구 분		명	%
성 별	남성	423	50.6	학 교 유 형	인문계	399	47.7
	여성	413	49 4		실업계	437	52.3

배경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표 2>,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많은 비율을 보인 경우는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이었고,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중퇴'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유형으로는 부모님이 모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89.2%)이었다. 부모의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맞벌이가 56.7%이었고, 아버지만 일을 하시는 경우와 어머니만 일을 하시는 경우가 각각

32.4%와 9.0%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6.3%가 '중간 정도'라고 응답하였고, '좋지 않은 편'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0.8%와 16.0%로 조사되었다.

〈표 Ⅳ-2〉 배경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단위 : 명, %)

구분		명	%
아버지 교육 수준	무학/초등학교 중퇴	9	1 1
	초졸/중학교 중퇴	64	7.7
	중졸/고등학교 중퇴	124	14.8
	고졸/대학교 중퇴	413	49.4
	대학교 졸업	190	22.7
	대학원 졸업이상	36	4.3
어머니 교육 수준	무학/초등학교 중퇴	12	1.4
	초졸/중학교 중퇴	73	8 7
	중졸/고등학교 중퇴	134	16.0
	고졸/대학교 중퇴	486	58 1
	대학교 졸업	119	14.2
	대학원 졸업이상	12	1.4
가족 유형	부모님 모두 계신다	746	89.2
	아버지만 계신다	32	3.8
	어머니만 계신다	54	6.5
	부모님 모두 안 계신다	4	.5
부모의 고용 상태	맞벌이를 하신다	474	56.7
	아버지만 일을 하신다	271	32.4
	어머니만 일을 하신다	75	9.0
	모두 일을 하시지 않는다	16	1.9
가정의 경제 수준	매우 나쁜 편	33	3.9
	좋지 않은 편	174	20.8
	중간 정도	471	56.3
	좋은 편	134	16.0
	매우 좋은 편	24	2.9

2) 노동관련 특성

학생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표 3>, 조사대상자의 50.1%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49.9%가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2명 가운데 1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일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성별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문계 남자 청소년의 33.8%, 인문계 여자 청소년의 33.9% 그리고 실업계 남자 청소년의 58.3%, 실업계 여자 청소년의 71.5%가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시기는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53.7%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다닐 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참여한 경우도 15.0%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일을 한 경우는 31.2%이었다. 한편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37.5%),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35.8%), 기타(23.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대체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와 '친구들의 권유'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와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1%와 1.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소비행위를 위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단위 명, %)

구분		명	%
경험 유무	일을 한 경험이 없다	417	49.9
	일을 한 경험이 있다	419	50.1
최초 노동	중1 이하	63	15.0
	중2	84	20.0
	중3	141	33.7
	고1	102	24.3
	고2	29	6.9
참여 이유	평소용돈이 부족해서	150	35.8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위해	9	2.1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4	1.0
	중요한 무엇인가를 꼭 사거나 쓸곳이 생겨서	157	37.5
	기타	99	23.6
주당 노동 시간	5시간 이하	154	36.8
	6~10시간	122	29.1
	11~15시간	23	5.5
	16~20시간	37	8.8
	21시간 이상	83	19.8
지속 기간	1~15일	123	29.4
	16~30일	83	19.8
	1~2개월	101	24.1
	2~3개월	43	10.3
	3개월 이상	69	16.5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6.8%가 '5시간 이하', 29.1%가 '6-10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21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도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학교를 다니면서 장시간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을 지속한 기간에 대해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49.2%) 1달 미만이

라고 응답하였지만, '3개월 이상' 오랜 기간 일을 지속하는 경우도 16.5%로 나타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표 4>, 먼저 임금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적절 안함'과 '별로 적절 안함'이 각각 21.0%와 29.6%로 나타나,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반응은 16.2%에 불과하였다. 또한 육체적 피로정도를 확인한 결과도 66.1%가 대체로 피로하거나 매우 피로하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3명 가운데 2명 정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을 하는 근무처의 물리적 환경(열, 추위, 소음 등)에 대해서는 만족(28.4%)과 불만족(31.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을 하는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36.5%)와 필요하지 않다(37.9%)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환경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근무처의 물리적 환경과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된 기술에 비해 받고 있는 임금의 수준과 일을 하면서 느끼는 육체적 피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Ⅳ-4〉 노동환경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단위 . 명, %)

구 분		명	%
임 금 수 준	전혀 적절 안함	88	21.0
	별로 적절 안함	124	29.6
	보통	139	33.2
	대체로 적절함	52	12.4
	매우 적절함	16	3.8
환 경 만 족	전혀 만족 안함	36	8.6
	별로 만족 안함	95	22 7
	보통	169	40.3
	대체로 만족함	93	22.2
	매우 만족함	26	6.2
피 로 정 도	전혀 피로 안함	14	3.3
	별로 피로 안함	47	11.2
	보통	81	19.3
	대체로 피로함	177	42.2
	매우 피로함	100	23.9
숙 련 정 도	전혀 필요안함	52	12.4
	별로 필요안함	107	25.5
	보통	107	255
	대체로 필요함	106	25.3
	매우 필요함	47	11.2

3) 가정생활 및 학업관련 특성

먼저 부모의 지지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표 5-1>, 네 가지 항목들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22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73.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7.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38.4%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가족과의 대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표 Ⅳ-5〉 부모의 지지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단위 . 명, %)

구	분	명	%
부모님의 애정	전혀 그렇지 않다	12	1.4
	별로 그렇지 않다	49	5.9
	그저 그렇다	165	19.7
	대체로 그렇다	365	43.7
	매우 그렇다	245	29.3
주중의 가족과의 대화	전혀 그렇지 않다	88	10.5
	별로 그렇지 않다	227	27.2
	그저 그렇다	260	31.1
	대체로 그렇다	193	23.1
	매우 그렇다	68	8.1
부모님의 정신적 지지	전혀 그렇지 않다	34	4.1
	별로 그렇지 않다	182	21.8
	그저 그렇다	299	35.8
	대체로 그렇다	243	29.1
	매우 그렇다	78	9.3
주말의 가족과의 대화	전혀 그렇지 않다	95	11.4
	별로 그렇지 않다	234	28.0
	그저 그렇다	266	31.8
	대체로 그렇다	171	20.5
	매우 그렇다	70	8.4

평균= 3.22, 표준편차= .79

부모의 슈퍼비전의 경우<표 5-2>, 부모님이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각각 46.2%와 42.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집안과 집밖에서의

규칙에 대해서는 각각 31.8%와 28.8%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이었다. 전체 네 항목들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08로 나타났다.

〈표 Ⅳ-6〉 부모의 슈퍼비전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단위 · 명, %)

구분		명	%
집밖에서의 또래와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58	6.9
	별로 그렇지 않다	181	21.7
	그저 그렇다	211	25.2
	대체로 그렇다	312	37.3
	매우 그렇다	74	8.9
집안에서의 규칙	전혀 그렇지 않다	41	4.9
	별로 그렇지 않다	201	24.0
	그저 그렇다	328	39.2
	대체로 그렇다	201	24.0
	매우 그렇다	65	7.8
집밖에서의 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61	7 3
	별로 그렇지 않다	197	23.6
	그저 그렇다	222	26.6
	대체로 그렇다	275	32 9
	매우 그렇다	81	9.7
집밖에서의 규칙	전혀 그렇지 않다	54	6.5
	별로 그렇지 않다	233	27 9
	그저 그렇다	308	36.8
	대체로 그렇다	190	22.7
	매우 그렇다	51	6.1

평균= 3.08, 표준편차= .79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많은 학생청소년들이(68.8%)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적응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8.2%이었다.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는 33.9%가 긍정적이었고 24.2%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인지를 질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반응(48.9%)이 그렇다는 반응(12.6%)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응답(41.6%)이 긍정적인 응답(20.5%)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급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학교에서의 성적수준은 '그저 그렇다'와 '중간 정도'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전체 학업수행 능력을 측정한 여섯 항목들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98이었다.

〈표 Ⅳ-7〉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단위 : 명, %)

구분		명	%
학교생활적응	전혀 그렇지 않다	14	1.7
	별로 그렇지 않다	54	6.5
	그저 그렇다	193	23.1
	대체로 그렇다	454	54.3
	매우 그렇다	121	14.5
공부의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44	5.3
	별로 그렇지 않다	158	18.9
	그저 그렇다	351	42.0
	대체로 그렇다	224	26.8
	매우 그렇다	59	7.1

구	분	명	%
공부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21	14.5
	별로 그렇지 않다	288	34.4
	그저 그렇다	322	38.5
	대체로 그렇다	92	11.0
	매우 그렇다	13	1.6
학급의 활동 참여	전혀 그렇지 않다	44	5.3
	별로 그렇지 않다	176	21.1
	그저 그렇다	418	50.0
	대체로 그렇다	165	19.7
	매우 그렇다	33	3.9
수업의 집중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89	10.6
	별로 그렇지 않다	259	31.0
	그저 그렇다	317	37.9
	대체로 그렇다	152	18.2
	매우 그렇다	19	2.3
학교성적수준	매우 나쁜 편	71	8.5
	좋지 않은 편	197	23.6
	중간정도	353	42.2
	좋은 편	188	22.5
	매우 좋은 편	27	3.2

평균= 2.98, 표준편차= .64

4) 비행관련 특성

<표 7-1>과 <표 7-2>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비행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달 평균 술을 마신 경험을 측정한 결과, '없다'가 37.7%이었고, '5번 이상'과 '1번'이 각각 19.7%와 18.4%로 나타났다. 그리고 술에 취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1번 이상 술에 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담배 몇 개피를 피웠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없다'가 76.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1-5개피', '16개피 이상'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Ⅳ-8〉 비행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음주와 흡연

(단위 : 명, %)

구분			명	%	평균(표준편차)
음주	술을마신경험	없다	315	37.7	2.17(1.23)
		1번	154	18.4	
		2번	106	12.7	
		3~4번	96	11 5	
		5번 이상	165	19.7	
	술에취한경험	없다	503	60.2	
		1~2번	172	20.6	
		3~4번	76	9.1	
		5~6번	16	1.9	
		7번 이상	69	8.3	
흡연	하루흡연정도	없다	637	76.2	1.49(1.06)
		1~5개피	94	11.2	
		6~10개피	44	5.3	
		11~15개피	14	1.7	
		16개피 이상	47	5.6	

한편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험, 학교에 지각을 한 경험, 그리고 학교수업을 빼먹은 경험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결과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의 물건을 1번 이상 훔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9%이었고, 학교수업을 1번 이상 빼먹은 경우는 26.7%이었다. 학교에 지각을 한 경우에는 상당수(68.3%) 청소년들이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으로 확인하였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폭력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비행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문제행동과 폭력

(단위 : 명, %)

구분			명	%	평균(표준편차)
문제행동	물건훔친 경험	없다	745	89 1	1.78(79)
		1~2번	58	6.9	
		3~4번	17	2.0	
		5~6번	3	4	
		7번 이상	13	1.6	
	지각경험	없다	265	31.7	
		1~2번	228	27.3	
		3~4번	94	11 2	
		5~6번	59	7.1	
		7번 이상	190	22.7	
	수업 불참 경험	없다	613	73.3	
		1~2번	118	14 1	
		3~4번	40	4 8	
		5~6번	20	2.4	
		7번 이상	45	5.4	
폭력	금품 갈취 경험	없다	809	96 8	1 10(.38)
		1~2번	20	2.4	
		3~4번	3	.4	
		5~6번	2	.2	
		7번 이상	2	.2	
	구타 경험	없다	749	89 6	
		1~2번	61	7.3	
		3~4번	15	1.8	
		5~6번	4	.5	
		7번 이상	7	8	

2. 노동시장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1) 비행과 관련해서의 차이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과 t-test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분석에 포함된 음주, 흡연, 문제행동, 그리고 폭력 변수들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earson 상관분석에 따르면, 음주(.40), 흡연(.28), 문제행동(.23), 그리고 폭력(.13)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수록 비행과는 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표 Ⅳ-10〉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비행 유형별

구 분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t값
음주	경험 무	1 69 (.96)	.40**	-12.48**
	경험 유	2 66 (1 28)		
흡연	경험 무	1.19 (.68)	.28**	-8.50**
	경험 유	1.79 (1.27)		
문제행동	경험 무	1 59 (69)	.23**	-6.85**
	경험 유	1.96 (.84)		
폭력	경험 무	1.05 (.26)	.13**	-3.77**
	경험 유	1.15 (.47)		

**p<.01

또한 t-test 분석결과에서도 음주, 흡연, 문제행동, 그리고 폭력의 순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음주와 흡연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 5점 척도에서 각각 0.97과 0.60의 평균값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음주와 흡연을 더 많이 하고 문제행동과 폭력에도 더 많이 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정생활 및 학업과 관련해서의 차이

<표 9>에서는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업수행 능력의 차이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과 t-test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분석에 포함된 3개 변수들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슈퍼비전에 있어서 일관되게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험 유무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이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11〉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가족 및 학업

구 분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t값
부모의 지지	경험 무	3.35 (.77)	-.16**	4.66**
	경험 유	3.10 (.79)		
부모의 슈퍼비전	경험 무	3.15 (.77)	-.09**	2.52**
	경험 유	3.02 (.82)		
학업수행 능력	경험 무	3.10 (.62)	-.18**	5.37**
	경험 유	2.87 (.64)		

**p<.01

또한 학업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평균 2.87이었고,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평균 3.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표 10, 11, 12, 13>에서는 노동관련 변수와 부모와의 유대 및 학업수행 능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음주, 흡연, 문제행동, 폭력 등 비행의 하위영역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간의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결과, 노동강도, 지속정도,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 그리고 학업수행 능력 변수들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노동강도와 지속정도는 비행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 및 학업수행 능력은 비행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주당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일을 지속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 및 학업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비행에의 관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2〉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음주

구 분	음 주	
	Bivariate	Beta
노동강도	.43**	.28**
지속정도	.40**	.16**
부모의 지지	-.23**	-.10*
부모의 슈퍼비전	-.20**	-.08*
학업수행 능력	-.21**	-.11**
부모의 교육수준	-.03	04
가정의 경제수준	-.06	.06
Adjusted R^2		.27

*p<.05, **p<.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관분석 결과, 음주는 노동강도 및 지속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 및 학업수행 능력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가 높을수록, 노동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청소년들이 음주를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흡연의 경우에도 음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문제행동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제외한 모두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학업수행 능력과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즉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질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의 경우에는 음주, 흡연, 문제행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이는데, 노동강도 및 지속정도와는 정적인 관계 그리고 학업수행 능력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가 높을수록, 지속정도가 길수록, 그리고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질수록 폭력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Ⅳ-13〉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흡연

구 분	흡 연	
	Bivariate	Beta
노동강도	.27**	.16**
지속정도	.25**	.10*
부모의 지지	-.18**	-.08*
부모의 슈퍼비전	-.15**	-.08*
학업수행 능력	-.21**	-.15**
부모의 교육수준	-.03	.02
가정의 경제수준	-.02	.07*
Adjusted R^2		.17

*p<.05, **p<.01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강도와 지속정도는 대체로 분석에 포함된 모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음주의 경우 다른 비행에 비해 노동강도와 지속정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은 음주, 흡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학업수행 능력은 모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제행동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문제행동

구 분	문제행동	
	Bivariate	Beta
노동강도	.19**	.09*
지속정도	.18**	.08*
부모의 지지	-.16**	-.08*
부모의 슈퍼비전	-.15**	-.08*
학업수행 능력	-.28**	-.25**
부모의 교육수준	.02	.07*
가정의 경제수준	-.02	.06
Adjusted R^2		.14

*p<.05, **p<.01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 가운데 음주와 폭력의 가장 강한 예측요인은 노동강도이었다. 노동강도와 학업수행 능력이 거의 비슷하게 흡연의 가장 강한 예측요인이었으며, 문제행동의 경우는 학업수행 능력이 가장 강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러한 변수들은 음주를 27% 설명하였으며 흡연, 문제행동, 폭력을 각각 17%, 14%, 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폭력

구 분	폭 력	
	Bivariate	Beta
노동강도	.13**	.13**
지속정도	10**	.09*
부모의 지지	-.03	-.05
부모의 슈퍼비전	-.06	-.05
학업수행 능력	-.10**	-.09*
부모의 교육수준	.01	.02
가정의 경제수준	-02	.02
Adjusted R^2		09

*p<.05, **p<.01

한편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관련 변수들은 대체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로정도(.17**)와 숙련정도(.17**)의 경우 음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사후검증 결과, 피로하다고 느끼는 집단과 피로하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간에(F=3.75**) 그리고 숙련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간에(F=4.17**)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피로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숙련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이 음주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유형과 부모의 고용상태는 전반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부모님 모두 계시거나 어머니만 계신 청소년들보다 아버지만 계시거나 부모님 모두 안계신 청소년들의 폭력에의 관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F=4.99**). 또한 부모 모두가 일을 안하시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폭력에의 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0**).

학교유형별로는 실업계 청소년들이 폭력을 제외한 다른 비행에 관여하는 정도가 인문계 청소년들보다 높았고,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 및 학업수행 능력은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 백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공 백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와 노동관련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836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은 423명(50.6%), 여자 청소년은 413명(49.4%)이었다.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0.1%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49.9%가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2명 가운데 1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일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음주, 흡연, 문제행동, 그리고 폭력 변수들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음주와 흡연을 더 많이 하고 문제행동과 폭력에도 더 많이 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비행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노동강도와 지속정도는 비행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 및 학업수행 능력은 비행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특히 음주의 경우 다른 비행에 비해 노동강도와 지속정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은 음주, 흡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학업수행 능력은 모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제행동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학교를 다니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일반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점이 있다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불확실한 실증적 토대에 기초하며, 현재 청소년들이 하는 일의 보편적 경험이 비행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외국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학교를 다니면서 장시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일반적 결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 함의들을 지닌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노동시장 참여를 교육적으로 더 유용하도록, 특히 미

래의 고용을 위한 준비와 관련해서, 전환하는 향상된 청소년 고용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실천적인 예는 우선 직장 순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멘터와 역할모델로서의 성인을 활용하여 세대간 접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을 학교활동으로 통합하기 위해 학교의 관심과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경험이 가치 있고 성인고용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고용제도에서의 포괄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는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더불어 경제적 욕구까지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건전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권리를 보장받고, 일을 하면서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는 포괄적인 방향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청소년관련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노동관련 내용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초기 학업적 발달과 개입 노력을 강조하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초기 개입은 미래의 비행과 연관된 행동상의 문제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비행의 보호요소로서 그리고 주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학업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직종에서

일을 한다면, 이는 비행에의 관여를 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순하고 보상이 적은 직종에서 장시간 일을 하면서 학업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기술과 교육적 자격을 보장받는데 실패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질적인 고용을 보장해 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최선의 접근은 초기 학업적 개입과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하게 학생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려는 전략보다는 이들이 장시간 일을 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 전문가들을 학교 내에 배치해야 한다.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적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을 개선하며, 특히 학교에서 노동권 보호와 고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가를 배치하여 학교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청소년 전문가들이 학교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사와는 분리된 업무를 관장하고 중개, 옹호, 지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조직구조 혹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장 확실하고 비용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이 심각한 학교는 청소년들을 학업능력에 따라 분리하여 대학진학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일탈자, 부적응자 혹은 실패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행동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외부기관 혹은 다른 사회제도에 돌린다. 능력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을 동기화하고 통합할 수 있

는 학교는 비행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조직의 변화전략은 학교의 운영방식, 규범, 기준, 목표의 변화, 교실 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특히 부모와의 연계와 같은 학교 기능의 다양한 수준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제도의 변화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초기 교육적 성공을 향상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교육 관계자, 청소년 전문가,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스스로가 많은 시간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면, 이를 문제의 근원으로 아니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대안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소득과 미숙한 풍요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들을 위해서 부모, 교사, 청소년 전문가들은 일하는 시간을 제한해서 학업이 주요한 영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일부 청소년들은 학업과정에 심한 좌절감과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효과적인 교육적 변화가 이들을 위해 활용될 수 없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학업중단과 같은 완전한 교육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안적 기반을 제공할지 모른다.

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

다는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에 대한 복잡한 이슈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재학중인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떻게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노동의 질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비행에의 관여가 높았는지 아니면 비행이 노동시장 참여의 결과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가 분명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이들이 하는 일 그리고 이 둘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이 살아가면서 고용의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특히 노동시장 참여가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연구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도종수 (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대책**. 사회복지정책 제13집, 104-123.

이광호 (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25-39.

이광호, 장원섭, 이혜정, 김희진 (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이형하, 이용교 (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2호, 89-100.

이혜정 (2000).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 청소년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서울YMCA.

장원섭 (2000). **청소년 시간제 취업의 진단과 대책**, 청소년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서울YMCA.

참여연대 (2002).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토론회 자료집.

한경혜 (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153-180.

Agnew, R. (1986). *Work and delinquency among juveniles attending school*.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9, 19-41.

Allan, E.A. & Steffensmeier, D.J. (1989). *Youth, unemployment, and property crime: Differential effects of job availability*

and job quality on juvenile and young adult arrest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7-123.

Arnett, J.J. (2000). *High hopes in a grim world.* Youth and Society, 31, 267-286.

Bachman, J.G. & Schulenberg, J. (1993). *How part-time work intensity relates to drug use, problem behavior, time use, and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eniors: Are these consequences or merely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20-235.

Barling, J. (1990). *Employment,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NY: Wiley.

Borman, K.M. (1991). *The first 'real' job: A study of young workers.* Albany: New York University Press.

Burton, V.S., Cullen, F.T., Evans, T.D., & Dunaway, R.G. (1994). *Reconsidering strain theory: Operationalization, rival theories, and adult criminal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213-239.

Carr, R.V., Wright, J.D., Brody, C.J. (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a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69, 66-81.

Cullen, F.T. & Travis, L.F. (1984). *Work as an avenue of prison reform.* New England Journal of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10, 45-64.

D'Amico, R.J. (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 152-164.

D'Amico, R.J. & Baker, P. (1984). *Pathways to the future.* Vol.4. OH: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rarch, Ohio State University.

Elder, G.H.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lder, G.H. & Caspi, A. (1990). Studying lives in a changing society: Sociological and personological explorations. In A.I. Rabin, R.A. Zucker, R. Emmons, & S. Franks (eds.), *Studying persons and lives.* NY: Springer.

Entwisle, D.R., Alexander, K.L., & Olson, L.S. (2000). *Early work histories of urban you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279-297.

Finch, M.D., Mortimer, J.T., & Ryu, S. (1994). Transition into part-time work: Health risks and opportunities. In Schulenberg, J., Maggs, J., & Hurrelmann, K. (eds.), *Health risk and developmental transitions during adolescenc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eman, R.B. (1996). *Why do so many young American men commit crimes and what might we do about i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ces, 10, 25-42.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reenberger, E. & Steinberg, L.D. (1981). *Adolescents who work: Health and behavior consequences of job stress.* Development psychology, 17.

Greenberger, E. & Steinberg, L.D. (1986). *When teenage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Y: Basic Books.

Hagan, J., Gillis, A.R., & Brownfield, D. (1996). *Criminological controversies: A methodological primer*. CO: Westview.

Hamilton, S.F. & Crouter, A.C. (1980). *Work and growth: A review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work experience on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323-338.

Hansen, D.M. & Jarvis, P.A. (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and Society, 31(4), 417-436.

Heimer, K. (1995). Gender, race, and the pathways to delinquency: An interactionist explanation. In Hagan, J. & Peterson, R D. (eds.), *Crime and inequality*, 140-17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etherington, E.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eithly, D.C. & Deseran, F.A. (1995). *Households, local labor markets, and youth labor force participation*. Youth and Society, 26(4), 463-492.

Lillydahl, J. (1990). *Academic achievement and part-time employmen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1, 307-316.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Tonry, M. & Morris, N.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29-1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rkus, H., Cross, S., & Wurf, E. (1990). The role of the self-system in competence. In R.J. Steinberg & J. Kolligan (eds.), *Competence considered*, 205-226. CT: Yale University Press.

Marsh, H.W. (1991).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or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Sociology of Education, 64, 172-189.

Mortimer, J.T., Finch, M.D. (1986).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Borman, K. & Reisman, J. (eds.), *Becoming a worker*, 66-89. Norwood, NJ: Albex.

Mortimer, J.T., Finch, M.D., Shanahan, M., & Ryu, S. (1992a). *Adolescent work history and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59-80.

Mortimer, J.T., Finch, M.D., Shanahan, M., & Ryu, S. (1992b).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25-58.

Mortimer, J.T., Finch, M.D., Dennehy, K., Lee, C., & Beebe, T. (1994). *Work experi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Vacational Education Research, 19, 39-70.

Mortimer, J.T., Finch, M.D., & Ruy, S., Shanahan, M.J., & Call, K.T. (1996). *The effects of work intensity on adolescent mental health, achieve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New evidence from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67, 1243-1261.

Phillips, S. & Sandstrom, K.L. (1990). *Parental attitudes toward youth work.* Youth and Society, 22, 160-183.

Pimentel, E.E. (1996). Effects of adolescent achievement and family goals on the early adult transition. In J.T. Mortimer & M.D. Finch (ed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n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191-220. Thousand Oaks: Sage.

Resnick, M., Bearman, P., Blum, R., Bauman, K., Harris, K., Jones, J., Tabor, J., Beuhring, T., Sieving, R., Shew, M., Ireland, M., Bearinger, L., & Udry, J.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Ruhm, C.J. (1995).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high school employment.* Journal of Labor Research, 16, 293-302.

Schill, W., McCartin, R., & Meyer, K. (1985). *Youth employment: Its relationship to academic and family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155-163.

Schneider, B. & Schmidt, J.A. (1996). Young women at work. In Dubeck, P.J. & Borman, K. (eds.), *Women and work: A handbook,* 17-21. NY: Garland.

Shanahan, M.J., Finch, M.D., Mortimer, J.T., & Ryu, S. (1991).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depressive affe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4), 299-317.

Steel, L. (1991). *Early work experience among white and non-white youths: Implications for subsequent enrollment and employment.* Youth and Society, 22, 419-447.

Steinberg, L. & Dornbusch, S.M. (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04-313.

Steinberg, L., Fegley, S., & Dornbusch, S.M. (1993). *Negative impact of part-time work on adolescent adjustment: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171-180.

Steinberg, L. & Greenberger, E. (1990). *The part-time employment of high school students: A research agend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 161-185.

Stern, D. & Nakata, Y.F. (1989).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paid jobs, and employment experience after graduation. In Stern, D. & Eichorn, D. (eds.), *Adolescence and work,* 189-211. NJ: Erlbaum.

Stevens, C.J., Puchtell, L.A., Ryu, S , & Mortimer, J.T. (1992). *Adolescent work and boys' and girls' orientations to the future.* Sociological Quarterly, 33, 153-169.

Voydaoff, P. (1987). *Work and family life.* CA: Sage.

Wright, J.P., Cullen, F.T., & Williams, N. (1997). *Working while in school and delinquent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Crime & Delinquency, 43(2), 203-221.

Yamoor, C. & Mortimer, J.T. (199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employment on adolescent*

achievement and well-being. Youth and Society, 22, 225-240.

부 록

공 백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청소년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전산처리를 통해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분석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응답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문 성 호
전화번호 : (02) 820-5170
E-mail : shmoon@cau.ac.kr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번호에 V 표시하기 바랍니다.

1. 당신은 보수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___1) 없다 (☞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10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빠짐없이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___2) 있다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시면 **2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빠짐없이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2. 당신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___1) 중1 이하 ___2) 중2 ___3) 중3 ___4) 고1 ___5) 고2

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___2)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___3)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___4) 중요한 무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

___5) 기타(써 주세요) _____

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까?

___1) 5시간 이하 ___2) 6~10시간 ___3) 11~15시간

___4) 16~20시간 ___5) 21시간 이상

5. 한번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통 얼마동안 일을 지속하였습니까?

___1) 1~15일 ___2) 16~30일 ___3) 1~2개월

___4) 2~3개월 ___5) 3개월 이상

6. 아르바이트의 임금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전혀 그렇지 않다 ___2) 별로 그렇지 않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대체로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7.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육체적 피로를 느꼈습니까?

___1) 전혀 그렇지 않다 ___2) 별로 그렇지 않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대체로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8.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무처의 물리적 환경(열/추위/소음 등)에 만족하였습니까?

___1) 전혀 그렇지 않다 ___2) 별로 그렇지 않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대체로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9.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___1) 전혀 그렇지 않다 ___2) 별로 그렇지 않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대체로 그렇다 ___5) 매우 그렇다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번호에 V 표시하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집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주중에 집에서 가족구성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늘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집밖에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집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주말에 가족구성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응답을 하나만 골라 번호에 V 표시하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공부하는 시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학급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밀이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달 평균 술을 마신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1) 없다 ___2) 1번 ___3) 2번

___4) 3~4번 ___ 5) 5번 이상

24.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술에 취한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1) 없다 ___2) 1~2번 ___3) 3~4번

___4) 5~6번 ___5) 7번 이상

25.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 평균 담배 몇 개피**를 피웠습니까?

___1) 없다 ___2) 1~5개피 ___3) 6~10개피

___4) 11~15개피 ___5) 16개피 이상

26.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1) 없다 ___2) 1~2번 ___3) 3~4번

___4) 5~6번 ___5) 7번 이상

27.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지각을 한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1) 없다 ___2) 1~2번 ___3) 3~4번

___4) 5~6번 ___5) 7번 이상

28.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학교수업을 빼먹은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1) 없다 ___2) 1~2번 ___3) 3~4번

___4) 5~6번 ___5) 7번 이상

29.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은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1) 없다 ___2) 1~2번 ___3) 3~4번

___4) 5~6번 ___5) 7번 이상

30. 당신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이 어느 정도입니까?

____1) 없다 ____2) 1~2번 ____3) 3~4번

____4) 5~6번 ____5) 7번 이상

◎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당신의 성별은?

____1) 남성 ____2) 여성

32.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____1) 무학 또는 초등학교중퇴 ____2) 초졸 또는 중학교 중퇴

____3) 중졸 또는 고등학교중퇴 ____4) 고졸 또는 대학교중퇴

____5) 대학교 졸업 ____6) 대학원 졸업 이상

33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____1) 무학 또는 초등학교중퇴 ____2) 초졸 또는 중학교 중퇴

____3) 중졸 또는 고등학교중퇴 ____4) 고졸 또는 대학교중퇴

____5) 대학교 졸업 ____6) 대학원 졸업 이상

34. 당신 가정의 경제 수준은?

____1) 매우 나쁜 편 ____2) 좋지 않은 편 ____3) 중간 정도

____4) 좋은 편 ____5) 매우 좋은 편

35. 당신의 학교성적 수준은?

____1) 매우 나쁜 편 ____2) 좋지 않은 편 ____3) 중간 정도

____4) 좋은 편 ____5) 매우 좋은 편

36. 당신의 부모님은 현재 모두 계신가요?

____1) 부모님 모두 계신다 ____2) 아버지만 계신다

____3) 어머니만 계신다 ____4) 부모님 모두 안 계신다

37. 당신의 부모님 중 누가 일을 하시나요?

____1) 맞벌이를 하신다 ____2) 아버지만 일을 하신다

____3) 어머니만 일을 하신다 ____4) 모두 일을 하시지 않는다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03-R14 청소년 정보소외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 · 최선희)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 · 김진호 · 오해섭 · 김희진)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 · 남경희)
03-R17 가족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03-R28 한 · 중 · 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 · 서정아)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 ·
박효정 · 현주)
03-R40 일탈 · 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 · 이동원)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 · 김상호 · 조정아)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 ·
이금순 · 이우영 · 전효관)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 · 윤옥경)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 · 김진호 · 김갑성)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 ·
한만길 · 최영표 · 강영혜 · 오해섭 · 김학성)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 · 조혜영 · 박창남)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 · 김진호 · 소병조)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 · 이경상 · 김종길)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헌)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윤철경·이상오·
황성하·서수경)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종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주)계 문 사 TEL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77(자료실)

ISBN 89-7816-480-3(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 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

연구자 : 문성호(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와 노동관련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4곳과 실업계 고등학교 4곳 등 8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각 학교의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무작위로 3개 학급 혹은 4개 학급에서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836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은 423명(50.6%), 여자 청소년은 413명(49.4%)이었다. 설문지는 교사와 보조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2003년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학교에서 직접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857부이었으나, 이 가운데 불성실하거나 자료 누락이 심한 21부를 제외하고 83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 집단간 상관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학생청소년들의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0.1%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49.9%가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2명 가운데 1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일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행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음주, 흡연, 문제행동, 그리고 폭력 변수들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음주와 흡연을 더 많이 하고 문제행동과 폭력에도 더 많이 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비행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노동강도와 지속정도는 비행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 및 학업수행 능력은 비행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특히 음주의 경우 다른 비행에 비해 노동강도와 지속정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지지와 슈퍼비전은 음주, 흡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학업수행 능력은 모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제행동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중요한 정책 함의들을 지닌다. 첫째, 현재와 같은 방식의 노동시장 참여를 교육적으로 더 유용하도록, 특히 미래의 고용을 위한 준비와 관련

련해서, 전환하는 향상된 청소년 고용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경험이 가치 있고 성인고용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고용제도에서의 포괄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현재와 같이 단순하고 보상이 적은 직종에서 장시간 일을 하면서 학업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기술과 교육적 자격을 보장받는데 실패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질적인 고용을 보장해 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최선의 접근은 초기 학업적 개입과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고용제도의 변화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초기 교육적 성공을 향상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교육 관계자, 청소년 전문가,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 백

목 차

I. 서 론 1

II. 선행연구의 검토 9

1.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동기 11
2.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15
3.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긍정적 측면 18
4.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 부정적 측면 22
5.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와 관련된 쟁점 28

III. 연구방법 33

1. 조사대상 35
2. 측정변수들 35
3. 자료분석방법 37

IV. 연구결과 3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2. 노동시장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52
3.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55

V. 결 론 61

1. 연구결과의 요약 63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64
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67

참고문헌 69

부록 77

표 목 차

<표 1> 개인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41
<표 2> 배경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42
<표 3>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44
<표 4> 노동환경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46
<표 5> 부모의 지지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47
<표 6> 부모의 슈퍼비전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48
<표 7>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49
<표 8> 비행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음주와 흡연 51
<표 9> 비행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문제행동과 폭력 52
<표 10>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비행 유형별 ... 53
<표 11> 노동시장 참여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가족 및 학업 54
<표 12>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음주 55
<표 13>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흡연 56
<표 14>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문제행동 57
<표 15> Pearson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 폭력 58